

영화<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속성 탐색 : 기호학의 ‘이항적 대립’ 구조를 중심으로

The Knowledge and Power Expressed in the Movie <The Name of the Rose> : Focused on the structure of 'binary oppositions'

이서라,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Seora Lee(srfeel@naver.com), Eui Jun Jeong(jeong12@konkuk.ac.kr)

요약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모든 문화콘텐츠장르에서 쓰일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다. 지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는 서로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가지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서사전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영화<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속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활용해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 간 이항대립의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봤다. 분석대상은 ‘장소(수도원과 장서관)’, ‘웃음논쟁’, ‘이단논쟁’으로 세 가지이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 세 가지 소재가 이항대립구조에 충실한 서사전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화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세 가지 소재의 심층적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은폐됐던 당시의 현실이 역설적 서사전략으로 폭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서사 과정에서 지식과 권력의 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중심어 : | 장미의 이름 | 지식과 권력 | 이항적 대립구조 | 서사적 보편소 | 추리서사 | 역설 |

Abstract

The Power and Knowledge are attractive materials that could be used in all of cultural content genre with storytelling. Because he, whether or not own knowledge, could be an important tool of narrative strategy for popularity keeping with a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ower and knowledge appearing in <The Name of the Rose>. For this purpose, it used the structuralistic methodologies of Saussure and Levi-Strauss, analyzing binary oppositions between the characters mainly connected with the knowledge and power. Three categories was analytic object, 'Place(abbey, book repository)' 'Debate on laughter', 'The argument for heresy.' As a result, we found the three materials had narrative strategy fully following binary oppositional structure. In that movie, which was deployed in a basis with knowledge and power, we eventually found that contemporary reality veiled the truth was paradoxically revealed with these narrative strategy. And we confirm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e attribute of knowledge and power in narrative processing.

■ keyword : | The Name of the Rose | Power and Knowledge | Binary Oppositions | Narrative Universal | Detective Narrative | Paradox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에서 주제나 주요 소재로 많이 쓰인다.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인지적 구조와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스토리에 문화와 시대, 장소를 초월해 모든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영화 <장미의 이름>에 주목했다. 이 영화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추리서사' 장르에 접목시켜 대중성과 서사성을 확보한 작품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서사적 욕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속성이 살인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몇몇 소재에 어떻게 반영 됐는지, 서사의 심층적 의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세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영화의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사전략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콘텐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영화 <장미의 이름>(장 자크 아노 감독, 1986년 개봉)은 움베르토 에코의 역사추리소설 <장미의 이름>(1980년 발표)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강영안(1995)에 의하면 원작<장미의 이름>은 사상소설이기도 하고 탐정소설이면서 역사소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본고는 특히 역사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에코는 중세 전문 연구가답게 중세 사회와 문화, 종교 문제를 매우 정확하고 흥미롭게 그려주고 있다. 중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 교회와 정치, 사랑, 삶과 죽음, 수도원 생활, 그들의 세계관에 관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준다[1]. 이러한 소설을 원작으로 <장미의 이름>은 영상 문법을 거쳐 영화로 재탄생했다. 이 영화는 여전히 원작에서 보여준 다양한 장르적 특징과 지식콘텐츠로서의 요소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다 돼 가는데도 꾸준히 연구돼 왔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또다시 이 영화를 연구의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2가지이다. 먼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영화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낡은 지식과 권력이 시대적 퇴장의 요구 앞에서 있는'[2] 현재 한국사회에도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자 텍스트에서 영상 텍스트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영시간이라는 한계와 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특성¹⁾상 보다 대중적인 서사구조를 차용해야 하는 만큼 문화콘텐츠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함의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역사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관객의 의식 속에 각인시켜 오랜 시간동안 회자 되고 있는지, 역사 콘텐츠의 적절한 표현 전략을 밝혀 영상 포지셔닝의 원리³⁾를 제공 하고자 한다.

영화 <장미의 이름>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중세 말엽(AD 1327년)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 사건들을 한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와 그의 제자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⁴⁾.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서사전략이 동원되면서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는 중세 기독교가 과도기적 형태에서부터 서양의 종교로 완성된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중세 초기는 게르만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형태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신학적, 교리적 정통성을 고수하기 위해 끊임없는 논쟁에 휩싸이는 기독교 중심의 철저한 종교적 시대로 변해간다. 이런 중세기독교의 특징이 작품 속에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도사의 삶이 기독교 신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⁵⁾.

이 과정에서 영화는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내놓기 위해 지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대립구조를 적극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1) 소설을 각색해 콘텐츠화 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은 원작소설보다 더욱 대중적인 서사구조를 차용하게 된다. 길이(상영시간)라는 심각한 한계와 그것으로 다룰 수 있는 한정된 소재의 양 때문에 영화는 소설이 심도 깊게 표현할 수 있는 다량의 요소들을 영상으로 압축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삭제되고 대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새롭게 부연 첨가된다⁶⁾. 따라서 보다 대중적이고 친밀한 성격을 띠게 된다.

중세를 배경으로 ‘진리’라는 특정 담론이 누구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지, 그렇게 안착한 진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지배체제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쉬르의 기호학 이론 중, 의미는 차이들의 체계에서 생산된다는 반대와 대조의 체계(a system of contrasts and opposites)에 근거해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항대립의 관계에 주목했다. 당시, 진리라는 것이 결국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인물들간의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조망해온 푸코에 따르면, “권력의 행사는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반대로 지식은 끊임없이 권력의 효과를 강화한다. 지식 없이 권력 행사는 불가능하며, 지식은 반드시 권력을 창출해낸다”고 반복해서 설명한다[8]. 지식과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생산된다. “지식의 경영, 지식의 정치학, 지식을 통해 전달되는 권력관계”[9]가 존재하며, 어떤 지식은 합법적이고 어떤 지식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본다. 지식 생산의 이 같은 메커니즘들은 효과적인 제어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리의 체제와 지배적 담론을 만들어 간다. 지배적인 담론은 어떤 것들이 다른 것보다 선천적으로 더 옳고 중요하다는 특정 세계관과 특별한 언어를 구성한다. 지배적인 담론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권력적 사회 구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10]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가 영화<장미의 이름>에서 이항대립의 구조를 갖춰 잘 나타나고 있다. 각각 상징성을 담고 있는 기호(인물)들이 대립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은 영화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사전략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미의 이름>이 ‘장소’, ‘웃음논쟁’, ‘이단논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이항적 대립 구조 속에서 탐색하고, 영화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사전

략을 밝혀 콘텐츠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기호학과 이항적 대립(binary oppositions) 구조

1968년 직후, 영화연구를 구성하던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기존 영화비평계를 가장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기호학이었다. 소쉬르에게서 시작된 기호학의 흐름은 메츠(C. Metz)와 움베르토 에코(U. Eco)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11]. 기호학을 태동시킨 구조주의는 하나의 이론적 방법[12]으로 20세기 초에 등장한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이론에서 발견되는 구조 언어학(linguistique structurale)에 기초를 두고 있다. 소쉬르의 언어이론은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R. Barthes)의 『신화 Mythologies』 [13]를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학적 구조주의는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 다른 분야에까지 폭넓게 소개됐다[14]. 그의 이론은 레비스트로스(C. Levi-Strauss)의 구조인류학에서부터 라캉(J. Lacan)의 정신분석, 롤랑 바르트로 대변되는 구조주의 문학 비평, 그리고 그레마스(A. J. Greimas)가 선도한 파리 학파의 기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15]. 영화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영역, 즉 인류학, 철학, 정신분석학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영향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1960년대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적 구조주의였다. 특히 내러티브의 구조에 대한 그의 연구는 영화이론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했다[16]. 이렇듯 구조언어학의 시조로 불리는 소쉬르가 세운 언어 이론 체계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보자면 상당한 지면이 필요[17]하기에 여기에서는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삼은 서사의 이항대립구조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쉬르는 언어가 ‘기표(記表, signifiant)’와 ‘기의(記意, signifie)’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둘이 합쳐져 ‘기호

(sign)'를 만들어내고,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둘의 관계는 순전히 관습의 산물이자 문화적 동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의미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본질적인 일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차이와 관계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언어에는 뚜렷한 의미가 없는 차이만이 존재한다[19]고 본 것이다.

(.....) 만약 당신이 추한 것을 제거하면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밝이란 관념은 낮이란 관념을 부른다. 왕의 존엄성이란 관념은 복종이란 관념을 부른다. 한 사람의 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덕분에만 존재한다. 모든 들어감은 나감이며,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은 하나의 동사 속에서 결합된다. 당신이 마리우스를 언급할 때 이 낱말은 나에게 포에니 전쟁이란 관념(.....)이 아니라, 실라 즉 마리우스의 적이자 반명제를 떠올리게 만든다[20].

다시 말해 기표의 가치는 미리 주어진 기의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의미는 차이들의 체계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21]. 예를 들면 사과라는 기표는 꺾이나 베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라는 기의를 가리킨다고 봤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언어는 하나의 반대와 대조의 체계(a system of contrasts and opposites)이다. 언어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결국 조합과 선택의 관계, 유사성과 차이의 관계 속에서 그물망처럼 짜여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22].

문화 분석의 한 양식으로서 구조주의는 소쉬르의 연구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받아들인다. 첫째는 문화 텍스트나 실천행위의 내재적 관계들, 즉 의미를 만드는 '문법'에 대한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의미란 항상 내재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선택과 조합의 관계들이 상호 교류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그러므로 구조주의의 과정은 의미의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습들('랑그')을 밝혀내는 것이다[23].

1975년에 구조주의와 영화에 대해서 중요한 공헌을 한 출판물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윌 라이트(Will

Wright)의 『권총과 사회 *Sixguns and Society*』이다. 라이트[24]는 『권총과 사회』에서 헐리우드의 서부극을 신화의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그는 특히 “서부극이 미국사회의 믿음에 대해 단순하지만 상당히 깊은 개념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표 1. 고전적인 서부극의 대립구조

내부사회 선 강 문명	외부사회 악 약 황야
----------------------	----------------------

표 2. 전문적인 서부극의 대립구조

영웅 외부사회 선 약 황야	사회 내부사회 악 강 문명
----------------------------	----------------------------

라이트에 따르면 고전적 서부극(1930~50년대)에서는 내부사회에 속하는 영웅과 사회가 그 사회의 외부자인 악당에 대항하면서 동맹한다[표 1]. 그러나 1960, 70년대를 지배한 전문적 서부극에서는 이항대립의 위치가 바뀌어 영웅은 외부 사회에서 강력하고 부패한, 혹은 부패해 가는 문명에 맞서 싸운다. 서사작용들도 많이 역전되는데 영웅은 그 사회의 국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그 사회의 유일한 구성원으로 등장한다. 급기야는 사회가 영웅이나 그 사회 문명권 바깥에 있는 국외자들과 대조되는 진짜 '악당'임이 밝혀진다. 영웅은 그 사회 문명권 바깥에 있는 이들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연대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문명에서 황야로 이동한다[25][표 1][표 2].

이와 같이 내·외부사회에서 선악의 위치가 바뀐 서부극의 역전된 대립구조는 영화 <장미의 이름>의 분석방식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진리인지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두 가지의 대립구조가 영화의 서사에 동시에 반영되면서 역전된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사회의 인물인 수도원의 성직자, 장서관 책임자(호르헤), 이단 조사관은 내부사회의 인물이면서 선을 상징하는 듯하지만, 결국엔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이단 조사관은 파견된 사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통인지 이단인지 여부로 믿음을 가려내기 위해 교황의 사절단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을 대신하는 내부인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본, 라이트[26]가 『권총과 사회 *Sixguns and Society*』를 신화의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토대로 삼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살펴보자. 소쉬르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인류학적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27]는 원시 신화분석에서 신화의 광범위한 이질성 속에 잠재하는 동질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류학자의 과제는 그 속에 잠재하는 문법, 즉 신화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규칙과 규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는 신화가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s)’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의미는 세계를 서로 배타적인 범주, 즉 문화/자연, 남성/여성, 흑/백, 선/악, 우리/그들 등으로 나눔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술했듯, 내러티브의 구조에 대한 그의 연구는 특히 영화이론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28]한 역할을 했다. 원시 신화 내 이항 대립 구조는 현대 사회의 대중적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많은 대중 영화는 선과 악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소설, 텔레비전 드라마도 이항 대립 간 갈등 혹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구체적인 수준(표층구조)에서는 등장인물이 범위를 저지르고, 범외자를 쫓고, 용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되지만 그것이 추상적 수준(심층구조)에 이르면 선과 악, 죄와 벌 등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29].

여기서 레비스트로스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야기체가 조직되고 구조화되는 방식과 그 조직이 의미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였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구조화된 관계와 그것이 뜻하는 바[30]이다. 여기서 대

립 쌍과 이것의 등장인물들 및 사건들과의 연관성은 필수적이다[31]. 이 때 이야기의 의미가 구체적 수준의 내용에서 추상적 수준의 내용으로 오를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이항 대립적 요소가 도움을 준다[32]. 서사이론가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대중영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면서, 영상 텍스트에 담겨있는 서사구조의 핵심적 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유용한 이론 틀 중 하나로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구조를 활용[33]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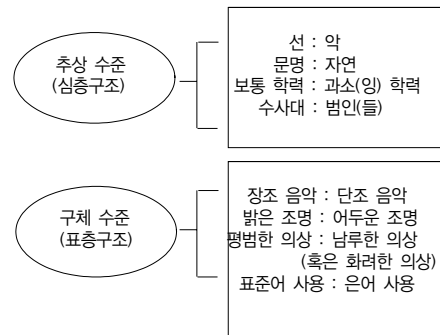


그림 1. 현대 대중영화의 이항대립 구조[29]

2. '지식'과 '권력', 서사의 보편적 구조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모든 문화콘텐츠장르에서 쓰일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다. 지식(혹은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 혹은 지식을 분배하려는 자와 독점하려는 자의 이야기 구조는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갖는다[34]. 대립의 관계를 통해 발생한 적대자와의 다양한 갈등 상황은 주인공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에서 주인공과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대 항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35]. 이러한 대립과 갈등 스토리는 수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작품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6]. 구조주의가 말하는대로 놀랍게도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이야기는 공통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인간은 비슷한 사고 체계와 뇌 구조를

지니고 있음[37]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지주의 가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인지주의 서사학자 호건(P. C. Hogan)[38]에 따르면 세계문학 속에는 공통의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보편적인 이유는 이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적 구조와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호건은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등장하는 문학적 요소를 '문학적 보편소'라고 부른다. 문학적 보편소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검증된 '경험적 보편소'이기도 하고, 감정²⁾이 개입 돼 있는 '감성적 보편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호건은 "서정시와 전형적 서사 그리고 감성적 전형 사이의 관계는 절대적 보편소"[39]라고 주장한다. 즉,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등장하는 '문학적 보편소'에 들어있는 감정과 전형성의 관계는 절대적인 보편소라는 것[40]이다.

이처럼 스토리(신화)에는 모든 문화, 모든 시대, 모든 개인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스토리 패턴이 담겨 있다. 이야기의 창작자들은 흔히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추출해 낸 일정한 패턴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서사학자들 역시 스토리의 보편적 구조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41]. 특히 추리서사³⁾는 한국 추리서사의 서사성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영성[44]에 따르면,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의 욕망이 수용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서사학적 의미를 지닌다. 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추리서사는 문제에 대한 탐색이라는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을 서사학적 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다른 서사체들에 비해 월등한 가독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독성은 대중에의 흡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사적 전략으로 이용되는데, 이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영화이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김영성[45]은 추리서사가 인류의 보편적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영화 <장미의 이름>은 추리서사의 구조를 지녔으면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양식'이면서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⁴⁾ 따라서 이 작품에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그것이 파생시킨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콘텐츠적 함의를 이끌어내려는 작업은 서사의 보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분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전술했듯이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수용자의 보편적인 경험에 의거, 이야기 구조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주제이자 소재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조명해온 푸코는 권력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일방향 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고, 권력자가 독점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그는 권력을 한 사회 안에서 도처에 존재하며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작동하는 인간 지배의 기술과 전략으로 인식했다[49]. "권력은 개인의 모든 생각과 신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행동, 태도, 말, 학습 과정, 일상생활 모두에 반영된다." [50]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권력을 가진 주체(지배계층, 엘리트 권력 등)가 하위 계층을 계속 종속시키고자 그것을 사용한다는 전통적 비판이론과 다른 접근방식이다. 또한 지배적인 담론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권력적 사회 구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푸코[51]는 "권력관계는 스스로 형성되거나 통합되지 않고 또 다른 담론의 생산, 축적, 순환작용 없이는 창출될 수 없다. 특정 담론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의 행사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권력이 지배담론을 만

2) 인간의 감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촉발된다. 사연 없는 감정은 있을 수 없다. 오틀리(Oatley)와 존슨-레이드(Jonshon-Laird)에 따르면 "감정이란 서사적 구조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성공 혹은 실패 한 것에 대해 주인공 자신이 내린 평가의 산물"이다[42].

3) 추리서사는 '추리소설적 서사구조'를 수용하거나 변용하고 있는 모든 서사물을 총칭한다[43].

4) 서사를 대표하는 장르는 소설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가 통용되고 있는 현대에서 소설은 더 이상 서사를 대표하는 장르가 아니다. 실제로 문자 언어의 한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소설에 비해, 서사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46] "오늘날 이야기는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대중강연,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47]는 최혜실의 언급은 현대 사회에서 서사가 놓인 맥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48]. 영화<장미의 이름>은 1980년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스토리 전개과정에서 보다 선명한 서사전략은 소설보다 영화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영화를 본고의 텍스트로 삼았다.

들고 그 지배담론은 권력적 사회구조를 지탱하고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권력이 사회체제안에서 자발적 동의를 얻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미 푸코는 현대사회에서 주권적 권력(sovvereign power: 군주나 대통령과 같은 명확한 권위적 주체가 위에서 아래로 행사하는 힘)이 규율적 권력(disciplinary power)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규율적 권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행사하는 자율적 권력을 뜻한다[52]. 그러나 이 규율적 권력은 또다시 주권적 권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규율적 권력이 자연스럽게 피지배계급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문화로 자리 잡아 강력한 통치수단이 됨으로써 주권적 권력 이상의 강제성을 띄게 됐기 때문이다. 자발적 동의하에 행사되는 권력은 그 무엇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같이 일상에서 권력이 어떻게 지배집단의 특권을 유지하게 해주는지, 그 덕에 권력이 어떻게 극대화 되어 행사되는지 등등 우리의 실제 생활과 매우 닮아있는 지식과 권력의 속성을 영화 <장미의 이름>의 서사에서 탐색해볼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논의의 틀

영화 <장미의 이름>은 선악의 이항대립구조에 충실한 작품이다. '수도원'이라는 장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는 성직자와 빈민가, 호의호식하는 자와 굶주리는 자, 기도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가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별되면서 선과 악의 대립구조를 보인다. '장서관'이라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다. 장서관과 돼지우리,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산 자와 죽은 자가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구조를 보인다. 윌리엄과 호르헤의 '웃음' 논쟁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승이 웃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웃게 되면 파멸의 길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호르헤와 이를 반대하는 윌리엄간의 논쟁에서 선악의 이분법적 대립구조가 선명하게 드러

난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 지식과 권력의 독점은 만행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였으리라 짐작된다. 이단논쟁은 또 어떤가? 가짜 즉 이단을 가려내고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는 주체의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이것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간의 이항대립구조를 통해서 영화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실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활용해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 간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s)의 관계를 풀어 나가면서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영화의 상징적 내용에 근거해 크게 세 가지 즉, '장소', '웃음논쟁', '이단논쟁'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세 가지 내용은 당시 중세라는 시대적 배경과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갖고 있는 장소의 상징성, 진리라는 담론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는 성직자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식과 권력의 문제가 영화 주제와 결부되어 어떤 방식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지, 궁극적으로 영화는 뭘 말하려 했던건지, 나아가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이항대립의 구조는 서사전략에 있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IV. 작품분석 : 영화<장미의 이름>

1. 장소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윌리엄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장소인 수도원과 수도원내의 장서관은 지식과 권력이라는 주제와 다양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상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인철[53]에 의하면, 공간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단지 외적인 지시의 대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각 능력에 따라 만들어내고 각각의 경계를 확정 짓는 주체의 인식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주체(윌리엄)는 자신의 지각 능력의 범위 안에서 대상들을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상들을 강조함으로써 공간, 즉 장소를 투사하고 생산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공간의 지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체는 공간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공간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주체의 쾌/불쾌의 기질적 상태를 통해 파악되고 또 이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또 나아가서 공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쾌나 불쾌의 상태에 있는 주체, 나아가서 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를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체는 공간을 자신의 지각 능력에 따라 만들어 내고, 공간은 주체의 상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주체와 공간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주체와 공간, 즉 장소와의 관계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다룬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수도원'과 '장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1 수도원

영화 초반부에서 수도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를 앞다투어 주워가는 장면이 나온다. 내부사회와 외부사회로 철저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이 장면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이항 대립구조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부인인 성직자는 호의호식하는 자이면서 기도하는 자를 상징하며, 외부인인 노동자는 굶주리는 자이면서 노동하는 자를 상징한다. 각각 내부사회와 외부사회에 속한 이들은 영화 초반, 고전적 서부극의 대립구조인 선 vs 악의 대립구조를 따른다(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선악의 위치가 바뀌는 '역설'의 전략을 사용한다).

표 3. 수도원(장소1)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성직자 호의호식 하는 자 기도하는 자	노동자 굶주리는 자 노동하는 자

전술했듯, 장소(공간)는 주체의 상태를 형상화 한다. 수도원 내부인과 외부인을 각각 해당 주체라고 한다. 수도원 내부에는 긍정적인 가치를 수도원 외부에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해 성직자와 노동자를 각각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로 형상화 한다. 철저한 이항 대립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직자는 늘 공부를 하고 깔끔한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먹으며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한다. 노동자는 늘 노동을 하지만, 늘 굶주리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수도원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내부와 외부의 형상들이 이처럼 각 주체의 상태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항대립의 구조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알튀세[54]에 따르면, “궁극적인 생산조건은 생산조건 재생산”이며,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재생산해야 한다. 여기서 생산력의 재생산의 핵심은 바로 노동력의 재생산이며, 이는 노동자의 의식주 비용에다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를 합산한 비용이다. 쉽게 말해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지배계급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장미의 이름>의 세계는 이러한 최소한의 공급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이고, 따라서 이런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55]. 열심히 노동해서 수확을 하는 농민들은 수도원과 성직자의 배를 불러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은 생산물을 취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사회구조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노동력,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피지배계급은 겨우 수도원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직자와 노동자의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

로 지식의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의 용광로’였던 수도원, 그 안에서 사는 사제들은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수도원 밖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굶주린 자들이었던 것이다. 지식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에,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갈취)’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사회 구조였던 것이다.

수도원이 수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체계와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 및 의식주 등의 기본 물품을 갖춘 하나의 “소우주”로 묘사되는 점을 감안[56]할 때, 그곳에 노동력과 생산물을 제공하는 자들은 그저 평생 생산력만 제공하다가 끝나는 기계같은 존재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분노 등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러한 사실은 윌리엄의 “청빈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도하는 자’(사제), ‘짜우는 자’(기사), ‘노동하는 자’(농부)라는 삼분법에 근거하여 유지되던 중세사회에서 기도하는 자와 노동하는 자를 구별짓기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다.

1.2 장서관

장서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이항적 대립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진리가 담겨있다고 ‘믿어진’(암묵적 지배담론이었을지도 모르는...) 서책을 찾기 위해 찾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간 숨 막히는 접전이 벌어진다. 찾으려는 자는 돼지우리에서 죽은 자로 발견이 되고, 숨기려는 자는 찾으려는 자를 죽이는 자이기도 하며 장서관에서 그의 존재가 행적과 함께 발각된다. 이처럼 수도원의 장서관은 탐욕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표 4. 장서관(장소2)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숨기려는 자 죽이려는 자 장서관	찾으려는 자 죽임 당한 자 돼지우리

장서관이라는 장소 역시 내부와 외부 각각의 주체에 선악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장서관과 돼지우리라는 이항대립적 장소에 이르러서는 그 전략이 절정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진리가 담겨있는 서책을 찾으려는 자들의 최후를 돼지우리에서 맞게 함으로써 그들을 ‘불쾌’의 상태로 형상화 시킨 것이다. 서책을 찾으려는 자, 즉 ‘그 책’을 보지 못해 외부인에 머물러야 하는(더 정확하게는 ‘외부인’이므로 그 책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은 돼지우리라는 장소를 통해 악 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 이항대립 구조 역시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 돼 있다. 서책을 찾으려는 자들은 그 책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지식을 통한 권력의 재분배)을 원치 않는 지식을 독점한 누군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서책의 선은 읽혀지는데 있”지만 장서관이 “이제는 그 서책을 묻어버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읽혀지기 위해 존재하는 책을 읽고자 하는 이들이 모두 살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이 한번 거른 진리만을 알려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57]. 이렇게 장서관은 지식을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지식을 찾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며, 죽은 후 발견된 장소가 돼지우리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장서관’이라는 장소는 지식과 권력의 저장고로서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등 이항적 대립구조를 통해 주체가 지각한 장소의 가치와 상태가 잘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이 장서관의 ‘그 책’을 보고자 했던 건 단순히 지식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다. “제 삶을 가꾸는 수단으로서, 제 비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다른 인간을 믿음의 전사나 이단의 첩명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을 구한다”고 장서관 보조사서 자리에 넘어간 베노를 두고 윌리엄이 한[58] 말은 당시에 정통과 이단 혹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자 했던 사제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

식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권력을 소유·행사할 수 있었고 진실에의 접근도 가능했던 장서관장 호르헤에게 세계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 시켰던 게 아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웃음' 논쟁

중세 시대에 '진리'는 오직 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인간이 신과 동일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건 르네상스 이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에서 비롯된다. 인간 주체, 인간 이성에 의해 역사가 전개된다는 데카르트의 인식론은 서양 근대철학의 사상을 지배했다. 진리가 오직 신의 영역이었던 중세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장미의 이름>은 진리와 웃음을 둘러싼 호르헤와 윌리엄의 대결이 중심축을 이루면서 작품의 주제를 형성한다.

표 5. '웃음' 논쟁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진리	파멸

호르헤와 윌리엄이 벌이는 웃음논쟁도 진리 대 파멸이라는 이항대립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조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식과 권력의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둘은 답을 찾아가는 논쟁을 벌인다. 호르헤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진리를 수호하려는 자신은 내부인이고, 책을 통해 웃음을 알게 되어 결국 파멸을 부르는 자는 외부인이다. 웃음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파멸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선을 지키기 위해 웃음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리'. 그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호르헤가 얘기 했듯,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진리일까?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푸코[59]는 진리가 진실이 되도록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주장한다. 바로 그 사람의 '지위'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진리를 결정하는 사람의 '지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이 대목에서 '진리'의 문제가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푸코는 '진리의 체제'에 대해 “사회가 수용하고 진실로 여기는 담론”[60]이라 정의했다. 실제 진실이 아니라 진실로 여기는(혹은 '여겨지는') 담론이라는 것이다. 특정 담론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일치할 때 그것들은 푸코가 말한 진리의 체제가 된다[61]. 나아가 푸코는 “각 사회가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담론의 방식, 참된 진술과 거짓 진술을 구분하는 메커니즘과 사례들, 진리임을 인정받기 위한 기술과 절차들,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지위 등이 일반적 정치 체계를 구성 한다”고 주장한다[62] 담론의 방식이나 진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정치체제 구성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영화로 돌아가면, 권력을 독점한 '누군가'의 의도로 설정된 담론(혹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고착화 된 것에서 푸코의 정의가 증명된다. 이를테면, 지식의 확산이 야기할 권력의 분배를 반대하는데서 비롯된 호르헤의 살인 행각이다(진리를 알고자 하면 죽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인 『회극』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호르헤가 이 책의 각 페이지마다 독을 발라놓은 것을 모르고 호기심에 책을 읽던 젊은 수도승들이 잇달아 독살된 것이라는 사건의 진상이 윌리엄의 입을 통해 밝혀진다. 도대체 살인까지 불사하면서 『회극』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윌리엄에게 호르헤는 그 책이 웃음의 가치를 칭송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63].

“웃음이 왜 그리 두려운 겁니까?”

“웃음은 두려움을 없애니까, 두려움이 없이는 신앙도 있을 수 없소. 악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느님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서책을 없앤다고 해서 웃음이 없어집니까?”

“물론 아니지. 천박한 자들은 계속 웃겠지만 만약에 이

책을 본 학자들이 모든 것에 대해 웃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느님까지도 비웃을 건가?”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걸세.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말해져선 안 되는 것을 봉인하는 무덤이 될 것이네.“

위의 대목은 진리니 중심이니 하는 개념을 설정해 놓고 그에 위배되는 다른 견해, 다른 해석은 모두 이단적인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 반인륜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삶이라는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실체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혹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진리 속에 가두어 두려는 닫힌 마음세계를 드러내 준다. 이는 호르헤 개인의 닫힌 사고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인생을 이성/감성, 정신/육체, 의식/무의식, 남성/여성, 진리/이단, 사실/허구, 중심/주변으로 이분화 시킨 상태에서 전자를 치켜세우면서 후자를 억압해 온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관류하는 이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64].

해당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호르헤는 “웃음은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 없이는 신앙도 없으며 하느님도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기표) 같지만, 실은 지식을 가짐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권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기의)이다. 즉, 당시 ‘지혜의 보고요, 지식의 영광로[65]’였던 중세 수도원, 그 안에서 이미 지식의 독점으로 기득권을 가진 수사 호르헤는 지식의 확산이 야기할 권력의 분배, 나아가 권력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지식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 않았던 신진 수사들을 독살시키는 과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3. '이단' 논쟁

앞서 살펴보았듯, 중세라는 시대적 배경은 곳곳에 장치된 영화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신의 영역이었던 진리를 판별하는 건 신의 역할을 대리하는, 당시에 권력을 독점했던 소수의 성직자 뿐이었다. 영화의 전체 흐름을 주관하는 이단

논쟁은 중세를 배경으로 진리를 판별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행위와 관련된 담론을 통해 지식과 권력의 속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단을 가려내어 고문하는 일은 지식을 가져 권력을 독점하던 자들이 내리던 형벌로, 이들이 이끌어가는 담론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였음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표 6. '이단' 논쟁의 이항대립구조

내부(선)	외부(악)
정통 진짜	이단 가짜

영화에서 이단논쟁은 정통 대 이단, 진짜 대 가짜의 이항대립구조를 보인다. 선과 악으로 극명히 대립하는 이 구조 역시 지식과 권력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단을 판별하는 준거는 교황이 파견한 이단 조사관 베르나르도 귀의 논증에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베르나르도 귀는 레미지오와 살바토레, 그리고 소녀를 살인범으로, 이단으로, 마녀로 판정하지만, 미신과 광신의 절묘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의 논증을 들으면서, 아드소는 그나 호르헤같은 자가 바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66]. 정통이 이단으로, 진짜가 가짜로 이행하면서 ‘인물들의 역할 전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체계[67]에 부합하지 않는 전략(인물들의 역할 전도)을 통해 당시 사회의 가치체계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교황이 파견한 이단 조사관이 ‘정통이 아닐 수’ 있으며, 살인범이나 이단 혹은 마녀로 판정받은 사람이 ‘이단이 아닐 수’ 있다는 역설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를 지배하던 담론과 모두가 진실이라 믿고 있던 가치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단 논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화의 메시지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모든 서사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이행, 역설). 이것은 결국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주제가 될 수 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목으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

던 베르나르도와 호르헤는 역설적이게도 당대 진리로 여겨졌던 인물을 상징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판별하는 인물로,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들이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휘두른 폭력과 살인은 철저히 지식과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단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리와 관련된 정치하고 집요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가려질 일이지, 상대방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받아낸 자백으로 판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문과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베르나르도 귀 자신이 바로 이단일 수 있는 것이다[68]. 이단조사관인 베르나르도 귀가 행한 '이단몰이' 행위는 일상생활의 의식과 교류에서 권력이 어떻게 극대화되어 행사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주권적 권력이 규율적 권력으로, 규율적 권력이 강력한 통치수단이 되는 주권적 권력으로의 이행 과정이 이미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화형에 처하기에 앞서 본인이 이단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는 베르나르도에게 레미지오가 “베르나르도, 악마는 바로 당신이야!”라고 내뱉는 장면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본 영화는 이단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해 놓고 후자를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써 전자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던 관행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비굴하게 자비를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털어놓는 레미지오의 모습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구세주임을 밝힌 예수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정통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이단으로 선고되고 사형당하는 이들이야말로 “정통” 기독교인일 수 있음[69]을 역설적 화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악을 분별해준다는 그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들의 권세는 불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가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극악무도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분노한 민중(농노)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탐

욕으로 가득한 지식과 가짜 진리는 ‘진짜 진리’앞에서 이렇게 헛것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함의

이 논문은 영화 <장미의 이름>에 나타난 지식과 권력의 문제에 주목했다.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영화의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사전략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콘텐츠적 함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해 본고는 ‘장소(수도원과 장서관)’, ‘웃음논쟁’, ‘이단논쟁’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식과 권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 간 이항대립구조를 중심으로 풀어왔다.

연구결과 이 4가지 분석대상은 ‘이행’과 ‘역설’이라는 동일한 서사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선악의 이항적 대립구조 속에서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이행’하는 상황을 목격했고, 정통이 이단이었고 이단이라 생각했던 대상이 이단이 아니었다는 ‘역설’의 상황도 확인했다. 영화는 내부인과 외부인 혹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선과 악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대립구조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과 악의 위치가 바뀌는 ‘역설’의 서사전략을 통해 진리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역설과 모순의 연속이고, 모호함과 불일치로 특징 지워지며, 진리는 결코 절대적일 수 없는” 인간경험의 복잡성이나 불확실성[70]을 역설적 기법을 통해 보여주하고자 했던 건 아닌지 반추해본다.

이러한 ‘이행’과 ‘역설’의 서사전략은 더 나아가 ‘지식과 권력’이라는 보편적 소재와 수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추리서사’라는 형식과 만나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영화에 투영하도록 만든다. 이 같은 전략은 영화의 서사구조로의 몰입을 쉽게 하고 동일시를 통해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소재를 현실을 투영할 수 있는 전형으로 변형[71] 시켜내는 영상콘텐츠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보편적 서사와 공감, 동일시가 핵심이 된다.

‘역사적 경험을 영화에서 어떻게 보편화 할 것인가’를 묻는 최민성[72]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영화 <장미의 이름>은 “현재, 21세기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독점, 재분배 거부)와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한 영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장미의 이름>은 14세기 서양 중세를 배경으로 그 당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장미의 이름>이 최초 상영 후 30년이다 꽤 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되고, 회자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영화는 중세를 배경으로 ‘진리’라는 특정 담론이 누구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는지, 그렇게 안착한 진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지배체제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이 진리의 선포이자 보존자임을 자임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거나 기존의 진리에 의심을 품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단죄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독해와 쟁의에 근거한 참된 권위가 아니다. 죽음으로써 위협하는 것이다[73]. 이렇게 지식과 권력, 탐욕으로 점철돼 수십 년간 금역으로 지켜 내려오던 장서관도 등잔불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이는 스스로가 정한 진리의 테두리 안에 갇힌 체생명의 기본 원리인 생성과 변화를 부인하며 자신의 교리만을 고집하는 닫힌 체계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다[74]. 결국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영화가 내놓은 답변은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듯, 불에 타다 남은 조각처럼 의미 없는 찌터미에 불과[75]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미의 이름>은 중세라는 역사적 배경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적 감각을 집목시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호학적 함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콘텐츠에서 주제나 주요 소재로 많이 쓰인다. 스토리에는 모든 문화, 모든 시대, 모든 개인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패턴이 담겨있는데, 특히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추리서사라는 구조와 결합해 인간의 보편적인 서사적 욕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스토리를 창작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사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전략을 발견하여, 보다 많은 수용자들과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향유의 전략을 제시하는 등 콘텐츠적 함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영안, “기호와 진실 -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기호학연구, 제1권, pp.283-284, 1995.
- [2] 기독교사상 편집부, “장미의 이름과 지식”, 권력, 기독교사상, 통권 제556호, p.271, 2005.
- [3]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다할미디어, p.115, 2005.
- [4] 신영현, “문학적 영화읽기와 문화연구적 영화읽기: 영화 <장미의 이름>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호, p.213, 2004.
- [5] J. Boggs, *The Art of Watching Films*, 이용관 역, 영화 보기와 영화 읽기, 제3문학사, p.251, 1991.
- [6] 신원선, “팩션사극 <뿌리깊은 나무>의 대중화 전략”, 인문연구, 제64호, p.339.
- [7] P. Young Won, “Interpreting Medieval Christianity through Literature: Beowulf, Gunnar’s Daughter, and The Name of the Rose,” 문학과 종교, 제18권, 제2호, pp.161-162, 2013.
- [8] S. D. Brookfield, *The Power of Critical Theory*

- for *Adult Learning and Teaching*, 2005. 기영화·김선주·조윤정 공역, 성인학습을 위한 비판이론, 학지사, p.172, 2009.
- [9] M.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 by C.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p.69, 1980.
- [10] S. D. Brookfield, 위의 책, pp.172-173, 2009.
- [11] 김시무, “영화이론의 흐름 개관”, 씨네포럼, Vol.4.0, pp.35-36, 2001.
- [12] J. Storey,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 : Theories and Methods*, 1996. 박만준 역, 문화연구의 이론과 방법들, 경문사, p.74, 2002.
- [13] R. Barthes, *Mythologies*. Paris, Editions du Seuil, 1957.
- [14] J. Storey, 위의 책, p.74, 2002.
- [15]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p.18, 2003.
- [16] J. Storey, 위의 책, p.74, 2002.
- [17] 박인철, 위의 책, p.18, 2002.
- [18] J. Storey, 위의 책, p.75, 2002.
- [19] F. D.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London : Fontana, 1974.
- [20] 한국기호학회,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한국기호학회, p.10, 2015.
- [21] 김시무, “영화이론의 흐름 개관”, 씨네포럼, Vol.4.0, p.36, 2001.
- [22] J. Storey, 위의 책, p.76, 2002.
- [23] J. Storey, 위의 책, pp.76-77, 2002.
- [24] W. Wright, *Sixguns and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23, 1975.
- [25] J. Storey, 위의 책, pp.78-80, 2002
- [26] W. Wright, 위의 책, 1975.
- [27] C. Le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 Basic Books, 1968.
- [28] J. Storey, 위의 책, p.74, 2002.
- [29]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pp.290-291, 2010.
- [30] A. A. Berger, *Media Analysis Techniques*, (1982),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역 (1990), *대중 매체 비평의 기초*, 이론과 실천, pp.30-32, 1990.
- [31] 김은영, “어린이 텔레비전 단편영화의 서사구조 분석 : EBS의 “2009 ABU 어린이 드라마 시리즈” 5개국 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4호, p.14, 2010.
- [32] 원용진, 위의 책, pp.290-291, 2010.
- [33] 김은영, 위의 논문, p.14, 2010.
- [34] 이서라, 정의준, “역사드라마의 콘텐츠 재목적화에 관한 연구 :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5권, 제3호, pp.131-132, 2014.
- [35] 안상혁, 주용성, “훈민정음 창제에 나타난 세종의 이상 :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와 원전 해례 본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과학, 제49권, p.117, 2012.
- [36] 이서라, 정의준, 위의 논문, p.132, 2014.
- [37] 원용진, 위의 책, p.300, 2010.
- [38] P. C. Hogan, *The mind and its story Narrative Universals and Human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7, 2003.
- [39] P. C. Hogan, 위의 책, pp.153-154, 2003.
- [40] 최용호, *서사로 읽는 서사학 - 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111, 2009.
- [41] 김정희, *스토리텔링이랑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42] P. C. Hogan, 위의 책, p.76, 2003.
- [43] 김정희, 위의 책, 2014.
- [44] 김영성, “한국 추리서사의 서사성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1) - 추리서사의 사적(史的) 개념과 적용 범주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 제29집, pp.185-188,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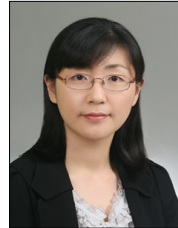
[45] 김영성, 위의 논문, p.188, 2006.
 [46] 송명진, “서사 전략과 대중문화 콘텐츠 -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위대한 탄생’을 중심으로 -”, 대중서사연구, 제25호, pp.206-207, 2011.
 [47] 최혜실,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p.5, 2006.
 [48] 송명진, 위의 논문, pp.206-207, 2011.
 [49] S. D. Brookfield, 위의 책, p.160, 2009.
 [50] M. Foucault, 위의 책, p.39, 1980.
 [51] M. Foucault, 위의 책, p.93, 1980.
 [52] S. D. Brookfield, 위의 책, p.155, 2009.
 [53] 박인철, 위의 책, p.489, 2003.
 [54] L.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Apparatu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1971. 신영현,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p.224, 2004.
 [55] 신영현, 위의 논문, p.224, 2004.
 [56] 신영현, 위의 논문, p.214, 2004.
 [57] 강유원, 장미의 이름 읽기 - 텍스트 해석의 한계를 에코에게 묻다 -, 미도, 2004.
 [58] 강유원, 위의 책, 2004.
 [59] M. Foucault, 위의 책, p.133, 1980.
 [60] M. Foucault, 위의 책, p.131, 1980.
 [61] S. D. Brookfield, 위의 책, p.173, 2009.
 [62] M. Foucault, 위의 책, p.133, 1980.
 [63] 신영현, 위의 논문, p.216, 2004.
 [64] 신영현, 위의 논문, p.217, 2004.
 [65] 강유원, 위의 책, 2004.
 [66] 신영현, 위의 논문, p.215, 2004.
 [67] 박인철, 위의 책, p.480, 2003.
 [68] 신영현, 위의 논문, p.228, 2004.
 [69] 신영현, 위의 논문, p.228, 2004.
 [70] J. Boggs, 앞의 책, p.96, 1991.
 [71]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 위의 책, p.115, 2005.
 [72]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 위의 책, p.113, 2005.

[73] 강유원, 위의 책, 2004.
 [74] 신영현, 위의 논문, p.217, 2004.
 [75] P. Young Won, 위의 논문, p.162, 2013.

저 자 소 개

이 서 라(Seora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대중문화콘텐츠, 영상문화연구, 기호학

정 의 준(Eui Jun Jeong)

정회원



- 2012년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11년 8월 : 미시건주립대 Telecommunication 박사
- 2010년 12월 ~ 2012년 2월 : 성균관대 Interaction Science 연구소 선임연구원

소 선임연구원

- 2006년 5월 ~ 2011년 8월 : 미시건주립대 M.I.N.D. Lab 연구원
- 2001년 5월 ~ 2004년 7월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디지털게임, 소셜미디어, 문화기술(CT)